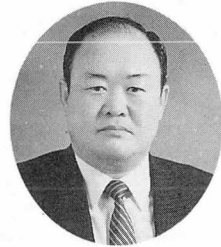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선봉장 역할 해 주기를...



정상원
(국립종축원 원장)

창간 15주년을 맞은 월간양돈이 우리나라의 양돈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온 공로를 높이 기리며 월간양돈의 오늘이 있기 까지 불철주야 애써 오신 대한양돈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월간양돈이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정보지로서, 경영기술의 지침서로서, 양돈가족의 친목지로서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고고의 성(孤孤之聲)을 울리며 태어나던 1979년은 돼지값이 형성되지 않을 정도의 양돈불황을 겪은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태어난 월간양돈은 '82년의 가격폭등, '84년의 가격폭락 등 되풀이되는 양돈경영의 악순환 속에서 돼지의 수급안정과 양돈인의 궁지와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애써 왔으며, 그 결과로 오늘날 굳건히 자리한 양돈인과 그 위상을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지금 무한경쟁의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련규제가 국내외적으로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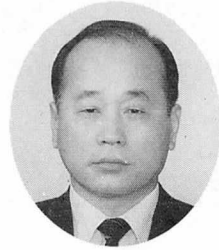
따라서 앞으로의 양돈경영여건은 지금까지 보다 더 어려워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닥칠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우리의 양돈산업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양돈산업은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양돈업은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국립종축원에서는 돼지인공수정시대의 전개를 위한 동결정액개발 성공, 오폐수대책을 위한 냄새없는 돈사와 돈분의 유기질비료화 시대의 전개 등 양돈농가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월간양돈이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 길잡이 역할에 앞장섰듯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선봉장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거듭 월간양돈의 창간 15주년을 축하하며 대한양돈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앞날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술축적과 경영개선만이 살아남는 길



이인형
(축산시험장장장)

월간양돈의 창간 1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양돈업과 고락을 같이 하여 왔고,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제시함으로써 양돈업의 발전에 선도역할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전국의 양돈인과 함께 감사와 축하를 드리면서 생각나는 몇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축산업, 특히 양돈산업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경쟁과 고품질 규격품을 생산·공급하여야 하는 변혁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현안과제들을 해결하고 양돈산업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첫째, 양돈인 모두가 한마음이 되고 조직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농업은 어느 부분이나 부업규모 형태에서 이제 겨우 전업규모 형태로 전환하고 있어 갈등과 역경속에서 살아왔습니다만, 국가경제운영의 자율화 추세에서는 모든 것을 정부에만 의존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양돈농가와 단체에서는 조직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중요한 정보의 신속한 확보와 전달 및 기술의 축적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기술의 축적과 경영개선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규격품의 공급없이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돼지고기의 수입자유화가 '97년 7월부터 실시되도록 되어 있어 외국산이 품질이 좋을 경우 소비자는 외국산을 선택할 것입니다. 개발된 기술의 활용과 경영개선 없이는 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가 없으며, 개방과 경제성장의 둔화로 과거와 같은 가격의 큰 진폭도 없을 것이므로 의외의 가격폭등에 의한 수익증가는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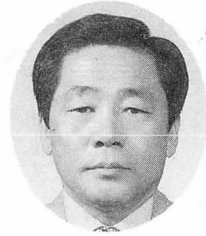
셋째 생산보다는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을 소비자의 손에 인계될 때까지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제 생산자보다는 소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처리가공, 판매의 과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이든 생산과 판매를 연계한 조직화가 되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생산물의 처리, 판매가 보장될 수가 없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넷째는 위에 말씀드린 현안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양돈농가와 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현실적이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한 기초하에 양돈업의 산업화 방안 수립과 집행이 뒷받침을 하여 주어야 한다는 말씀도 정부 관계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 과제에 대하여 창간 15주년 축사의 내용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나, 우리는 큰 시련기를 맞게 되었으므로 대한양돈협회 임직원 여러분과 전국의 양돈농가는 보다 더 힘과 용기를 가지고 비판보다는 현안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바라고, 월간양돈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품질 · 안전성 높은 돼지고기 생산에 주력할 때



박근식
(가축위생연구소 소장)

월간양돈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의 기관지로 발간되어 15개 성상을 지나 오면서 기관지의 역할보다 창간 당시 낙후된 우리나라 양돈기술 보급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오늘의 한국 양돈산업으로 육성시키는 데 큰 몫을 담당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 그 많은 기복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월간양돈지에 뜻있는 분들의 글을 실어 극복하는 지혜를 주어 양돈농가의 반려자로 함께해 왔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학계 또는 연구분야는 물론 양돈산업 관련산업 부서에서 익힌 기술이나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기술 보급에도 노력하여 2조원에 가까운 산업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동안 월간양돈지를 편집하였던 모든 분들과 또 투고하신 분 그리고 월간양돈지 발행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 광고업체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양돈협회의 월간지인 동시에 양돈인 모두의 잡지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열다섯돌을 맞아 그동안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적인 측면을 조명해 본다면 생산성 향상과 높은 품질과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높은 돼지고기 생산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가공품의 생산에 주력할 때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양돈인은 스스로가 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생산자의 역할분담이 분명해야 할 때입니다. 고품질의 돈육생산과 생산성 향상은 질병의 완전한 예방에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 방역 위생기술을 현장화하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직 양돈 생산자들의 자율방역을 위한 조직이나 이 기능을 맡을 곳이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의 좋은 시장인 이웃 일본에서는 에스피에프(SPF : 특정질병이 없는)돼지의 생산이 날로 증가하여 현재 전 양돈의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SPF돼지 증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위해도 분석과 중점관리방식(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HACCP)”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우리의 양돈산업도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월간양돈이 열다섯돌을 맞으면서 이 부분에 보다 힘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면서 다시 한번 창간 1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월간양돈』지는 양돈업의 길잡이가 되어라



김형화 교수
(한국축산경영학회 회장)

월간양돈지의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15년이라는 세월은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또한 우리나라 양돈업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준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축산은 오랫동안 부업축산이라는 태두리 속에서 그것이 영위되어 오다가 80년대에 들어서 전업축산으로 그 모습을 탈바꿈하게 되었으며, 그것의 선도적인 역할을 양돈이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양돈의 변화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급식품인 육류의 소비가 날로 증가한 데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소비증가만으로 양돈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며, 양돈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간파하여 충분히 대응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월간양돈지는 창간과 더불어 이러한 양돈업계의 변화를 끊임없이 일깨워 주고, 그 방향을 제시하여 왔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돈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과거 그것과는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장제일주의에 입각하여 양돈은 사육규모를 확대하고 전업적으로 대규모화하여 왔는데 이것의 부작용으로 축산의 공해가 문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90년대에 들어와서는 환경문제가 우리 국민간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성장의 그늘에 놓여 있던 공해문제가 모든 분야에서 노출되면서 양돈에 있어서도 환경문제는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우리나라 양돈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시장개방화라고 하는 국제적인 물결입니다. 그동안 우리 양돈이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수입제한으로 국내시장을 보호해 왔기 때문입니다. 외국 축산물이 자유스럽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양돈은 외국의 그것과 무한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축산은 서양에서 발전되었던 농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경쟁에 있어서 우리나라 양돈업이 과연 뒤지지 않을 수 있을런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양돈업은 외적으로는 국제화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내적으로는 환경보전이라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양돈업에서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월간양돈지가 끊임없이 노력했듯이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또한 월간양돈지가 그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